소외된 이웃에 빛…'현대불교 법보시' 26만부 돌파

매주 군·교도소 등 1402곳 '佛法' 배달

우리사회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삶에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추위 못지 않게 쓸쓸함과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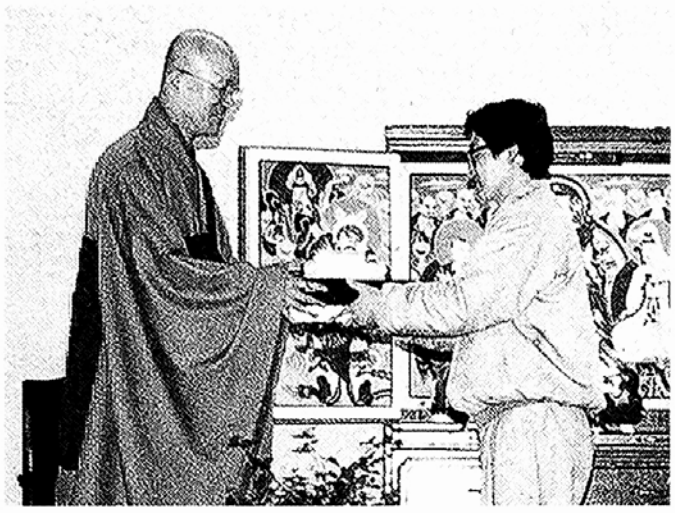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이 빈부의 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때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부처님가르침을 전해준다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97년부터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1천원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여 부의 신문이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 교민시설 등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은 모든 여래(如來)를 만든다(화엄경)"는 부처님의 말씀을 행(行)으로써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수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으로 현대불교신문은 현재 군법당 234곳, 국군병원 18곳, 교도소 및 교정청 99곳, 구치소 및 감호소 33곳, 소년원 및 감별소 32곳, 양로원 26곳, 아동복지시설 45곳, 청소년복지시설 28곳, 사회복지기관 269곳, 불교병원 16곳, 경승실 257곳, 경찰병원 2곳 등 총 1,402개 시설에 매주 1,887부의 신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문은 지금까지 총 26만2,600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불자들의 동참으로 20일부터는 전국 교도소 32곳에 〈삶은 苦가 아니다〉와 〈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각각 2권씩 보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신문보내기 1천원 법보시는 그늘진 이웃에 자비와 지혜의 법등을 밝히는 작지만 의미있는 불사다. 법보시 수혜자 서재만씨(당시 청송감호소 수감 중·사진 오른쪽)도 '현대불교'를 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며 지난해 12월 현대불교 제5회 신행수기에 응모해 입상하고 지난 3월 조기출소했다.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청송교도소 재소자 이 재 익

"지옥에서 밝은세상 만난 기분"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수없는 악행을 저지른 과보를 청송교도소에서 치르고 있는 재소자 이재익입니다.

제가 업보를 온유히 수긍하고, 참회발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현대불교신문 법보시자의 자비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끝없는 나락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저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고철이 용광로를 거치면 강도 높은 쇠로 재련되듯이, 이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 저도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받은 따뜻한 사랑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다시 베풀 것을 발원합니다.

현대불교를 법보시하고 백만원씩 수시 후원 조 동 만

"희망의 씨앗 널리 퍼졌으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 용기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해서 법보시를 하게 됐습니다."

97년부터 수시로 100만원씩 법보시 후원을 해 온 조동만씨(43).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나눔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하는 조씨는 "보시한 신문이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고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배달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용기를 북돋우는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면서 법보시 운동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보시 후원 현황

구 분		발송처	보시부수	총보시부수
군부대	군법당	234	302	47,000
	국군병원	18	50	8,500
교화기관	교도소·교정청	99	275	31,450
	구치소·감호소	33	115	14,150
	소년원·감별소	32	60	3,900
복지단체	양로원	26	26	4,270
	아동복지	45	45	7,650
	장애인복지	17	17	3,340
	청소년복지	28	28	4,610
	사회복지기관	269	269	38,530
	불교병원	16	68	11,560
경찰	경승실	257	261	44,370
	경찰병원	2	6	1,020
지정 법보시	단체	228	267	25,590
	개인	98	98	16,660
전 체		1,402	1,887	262,600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치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2164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문 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02)737-0697(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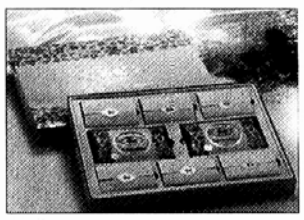
법보시 동참 후원자 명단

간종흠,강갑순,강경중,강말숙,강미영,강민정,강병현,강북복지관,강성욱,강숙희,강순영,강신옥,강신택,강영신,강옥구,강용희,강유미,강은영,강인성,강인숙,강장옥,강정기,강정숙,강정화,강정희,강종남,강지숙,강춘계,강태근,강태복,강현숙,강황진,경정경,남지원,경순자,고계환,고경진,고덕현,고순진,고영배,고영이,고용순,고은주,고재선,고필선,고형사,공광근,구진모,구진화,구핀회,권갑남,권계순,권동희,권미경,권복연,권복자,권복현,권성행,권순권,권순령,권순혁,권연자,권영숙,권영현,권오석,권오용,권오진,권옥순,권은경,권첨숙,권진순,권차순,권초지,권춘순,기현정,김갑순,김경선,김경수,김경숙,김경순,김경애,김경열,김경옥,김강혜,김경훈,김경희,김광숙,김광순,김광태,김교안,김국중,김귀남,김규정,김근삼,김근영,김금순,김기훈,김길운,김남경,김남석,김남숙,김대현,김덕임,김덕자,김두영,김들남,김득자,김록인,김말선,김명덕,김명옥,김명자,김명훈,김명희,김문자,김미란,김미병,김미선,김미순,김미정,김민수,김민옥,김범수,김병서,김병주,김병철,김병훈,김복남,김봉윤,김봉해,김상덕,김상림,김상병,김상분,김상순,김서분,김석순,김석용,김선남,김선화,김성경,김성민,김성순,김성자,김성진,김성혜,김성희,김송자,김수영,김수희,김순경,김순남,김순녀,김순덕,김순련,김순식,김순옥,김순현,김순희,김승재,김승지,김식자,김신업,김애란,김애리자,김애자,김양순,김여경,김연득,김연봉,김연수,김연옥,김연자,김연희,김영란,김영만,김영배,김영삼,김영숙,김영순,김영식,김영아,김영옥,김영자,김영희,김옥,김옥경,김외선,김용구,김용범,김용준,김용철,김완순,김완용,김원우,김유학,김윤성,김윤중,김윤환,김윤희,김은영,김의식,김인성,김인숙,김인희,김일동,김자경,김장복,김정란,김정선,김정숙,김정애,김정옥,김정은,김정이,김정자,김정주,김정희,김제철,김종,김종미,김종애,김종옥,김종일,김주곤,김주삭,김주원,김주현,김준만,김준모,김준엽,김준형,김준희,김지영,김지은,김지현,김창수,김철수,김춘자,김춘호,김춘화,김춘희,김치훈,김태현,김태훈,김택곤,김한나,김현,김현수,김현숙,김형창,김형철,김혜경,김혜기,김혜숙,김혜옥,김호,김호영,김호종,김화남,김화수,김환수,김효성,김효숙,김희남,김희손,김희수,김희순,나관숙,나숙희,나순옥,남성수,남성진,남수경,남수미,남수진,남일우,남철수,남하자,남화자,노만호,노순남,노유택,노은택,노진희,노향순,노혜숙,덕성암,덕운화,덩형관,도옥희,도재권,동사섭,류경흔,류봉수,류영란,류정남,류정오,류조형,마정혜,마진호,명세정,모영희,한마음선원목포지원,무명,문명순,문병기,문상철,문선희,문숙자,문순조,문정강,문필금,문필수,문형주,문화자,민경주,민병용,민복순,민소영,민승자,민응식,민하식,민혜원,박강숙,박경남,박경래,박경선,박경수,박경숙,박경애,박경화,박곱수,박광용,박광호,박구숙,박귀남,박금숙,박금숙,박기규,박기정,박길순,박남순,박남옥,박내순,박달화,박득수,박명외,박무순,박미경,박미정,박배훈,박병욱,박병주,박복자,박봉주,박상규,박상기,박상섭,박석열,박성례,박성수,박성순,박성진,박세광,박수진,박숙경,박숙자,박순덕,박순득,박승희,박신영,박양님,박양임,박양자,박영숙,박영애,박영우,박영준,박영철,박옥남,박옥이,박용무,박용숙,박용자,박원규,박윤기,박윤식,박은숙,박은주,박익형,박재련,박재진,박정산,박정상,박정순,박정자,박정희,박제원,박종두,박종실,박주연,박주원,박준영,박준형,박준호,박진현,박진환,박징자,박찬연,박친혜,박천혜,박철수,박청자,박춘자,박태규,박필원,박현순,박현주,박혜명등,박혜숙,박혜정,박혜진,박희순,방금순,방명섭,방순학,방재순,배경숙,배광흔,배동금,배명호,배병진,배복희,배성호,배순자,배연수,배춘자,배현주,백상준,백성옥,백양심,백유선,백현기,백혜원,법인스님,법현스님,변미자,변인택,현대불교 직원일동, 한마음선원신도, 한마음선원봉사모임,봉철용,부산신도회, 한마음선원부산지원신도회,사랑방,상미육,서경자,서귀연,서덕교,서덕교,서말자,서말희,서명선,서병학,서봉순,서부웅,서삼조,서옥경,서울은혈,서윤아,서정숙,서정화,서준,서진,서희선,서춘건,서충우,서형관,석해원,선유진,선장재,선정효,선현자,설갑문,설정수,설지석,성등환,성묘경,성민자,성영분,성재영,성필재,성호승,소진임,손광자,손금화,손미숙,손봉희,손상룡,손을선,손인아,손인화,손정숙,손정자,손진임,손혜숙,손화자,송광옥,송규환,송미숙,송미애,송복희,송성의,송성의,송승현,송양숙,송연숙,송영근,송영애,송인영,송정구,송필재,신경희,신미향,신미환,신복순,신상섭,신수호,신순애,신순희,신시균,신원민,신유진,신윤진,신장재,신재락,신재철,신조현,신진임,신택건,신호용,신홍재,심공희,심광엽,심근희,심능희,심단희,심만희,심묘희,심법희,심보희,심성학,심안희,심원희,심일희,심춘자,심향희,심희주,안성모,안순옥,안영근,안영선,안진후,양병덕,양세옥,양영애,양은숙,양의근,양점순,양정순,어종선,엄남주,엄정임,영등포법회,오동규,오두환,오막순,오명자,오미환,오병현,오선희,오세철,오송준,오순자,오승종,오영희,오주중,오주희,오진희,오창일,오창희,오현승,오현자,오형만,오형희,오희숙,용산구법회,용환웅,우경애,우금식,우동렬,우상용,한마음선원삼산지원,원정옥,유강수,유광수,유금자,유미양,유선재,유양상,유은경,유인묵,유재훈,유정연,유정용,유춘자,육성회,육성희,은경애,은경희,은기수,윤미희,윤병창,윤병혜,윤상돈,윤석범,윤성,윤영자,윤옥희,윤인자,윤재경,윤제화,윤종숙,윤준상,은지웅,은지은,은차남,은창섭,윤태원,윤향숙,은경애,이강희,이경민,이경숙,이경아,이경원,이경인,이경자,이계선,이관형,이교재,이구자,이귀숙,이규만,이규환,이금순,이금주,이기오,이기철,이남심,이노마,이대섭,이덕의,이동기,이동준,이동희,이명규,이명수,이명순,이명자,이명준,이표연,이미경,이미나,이미애,이미자,이번택,이범규,이병만,이병진,이보경,이복순,이봉순,이봉우,이부양,이분순,이삼경,이상란,이상옥,이상윤,이석준,이선임,이성재,이승자,이수자,이숙희,이순교,이순덕,이순랑,이순옥,이순일,이순자,이순천,이순호,이순희,이숭숙,이승은,이승훈,이신정,이씨,이아리,이애자,이양희,이연수,이연규,이연옥,이영경,이영숙,이영순,이영조,이영희,이오석,이옥색,이유영,이옥형,이육희,이용법,이우승,이운자,이유순,이유옥,이은숙,이은주,이은진,이외남,이인수,이인상,이인숙,이임순,이장혁,이재국,이재숙,이재윤,이재화,이점자,이정녀,이정례,이정수,이정숙,이정순,이정자,이정혜,이정희,이종돈,이종락,이종석,이종철,이준만,이준석,이준재,이준희,이중근,이지영,이지웅,이지형,이진경,이진선,이진수,이진영,이진철,이창윤,이창하,이창효,이창훈,이천희,이철주,이형,이태우,이태인,이태호,이태훈,이태희,이판순,이필순,이한득,이한숙,이한희,이향미,이현규,이현숙,이현실,이현안,이현양,이현주,이형호,이혜란,이혜숙,이혜옥,이호진,이화숙,이화영,이화주,이효순,이후로,인천신행회,임경희,임기남,임명옥,임명진,임문숙,임선원,임소연,임옥재,임완숙,임우식,임재순,임정숙,임종미,임채임,임춘심,임해순,임형대,임홍민,임희자,장금강심,장미,장미옥,장영순,장영찬,장점,장정,장정기족,장정숙,장정자,장정희,장혁자,장혜기,전갑일,전계연,전규백,전류점,전병임,전병제,전복순,전삼우,전수남,전순남,전순자,전순조,전승현,전연석,전연택,전영자,전위자,전유정,전인성,전인영,전인호,전정숙,전정순,전정애,전정희,전진희,전현수,전현진,정건재,정계영,정구순,정금란,정금란,정대자,정동환,정모아,정무영,정문식,정미경,정미련,정미향,정미형,정민아,정복순,정분선,정삼준,정상열,정숙남,정숙점,정숙정,정순자,정연경,정연동,정연봉,정연식,정연태,정연희,정영기,정영신,정옥녀,정옥찬,정윤옥,정윤채,정은경,정은경,정인순,정점오,정정국,정정숙,정정순,정정자,정정희,정진육,정꾀준,정핀수,정핀순,정핀준,정학선,정학선,정해정,정해택,정현동,정훈재,조경자,조귀자,조남섭,조남주,조동만,조명래,조명식,조미란,조미숙,조미순,조민우,조분옥,조상호,조승우,조약식,조양자,조영숙,조옥희,조원희,조유복,조은숙,조은호,조은미,조인자,조정현,조정훈,조칠제,조현애,조혜숙,조혜연,주영란,주우순,주인공,주현순,지경애,지순입,지연옥,지유미,지청인,진경상,진경수,진광현,진병웅,진영숙,진영화,진옥례,진욱상,진원중,진재영,진재용,진정임,차동호,차상환,차수항,차용옥,차정순,차현주,차희자,채희순,천재경,천현숙,천화조,청주교도소,최경락,최경자,최경자,최경진,최곰례,최금철,최만례,최명희,최범순,최병언,최병조,최복내,최복순,최상철,최서은,최석원,최선영,최성근,최성대,최성휴,최수현,최심형,최영도,최영명,최영봉,최영숙,최영숙,최은정,최은희,최인숙,최인자,최재두,최재철,최정근,최정기,최정분,최정희,최주현,최학우,최행선,최현민,최현주,최형선,최호자,최희원,추철희,충남대교수불자회,태극지원,표혜명,하금자,하명자,하석남,하선희,하순애,하순임,하은영,하정희,하홍용,한경규,한경호,한국여성불교,한기선,한마음사랑방,한명숙,한미순,한병소,한상현,한숙희,한순예,한순자,한승찬,한아름,한양자,한영욱,한영찬,한임련,한정석,한정석,한철희,한준영,한태희,한효심,함광점,함광잡,함기석,함명익,함삼수,함영숙,함지은,허명희,허상임,허석남,허선숙,허성국,허수자,허승자,허희숙,허재승,허재영,허점자,허정남,허정훈,허종환,허찬응,허학연,허희숙,현불회,현수천,현월스님,현추월,혜원당,호소희,홍기장,홍명숙,홍민자,홍병숙,홍소순,홍순아,홍영순,홍영호,홍인자,황경숙,황금청,황기용,황영분,황옥란,황옥석,황옥순,황정숙,황정옥,황창영,황태숙,회복내

총 1,171명이 106,860구좌를 보시했습니다. (2000년 10월 5일 기준)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끓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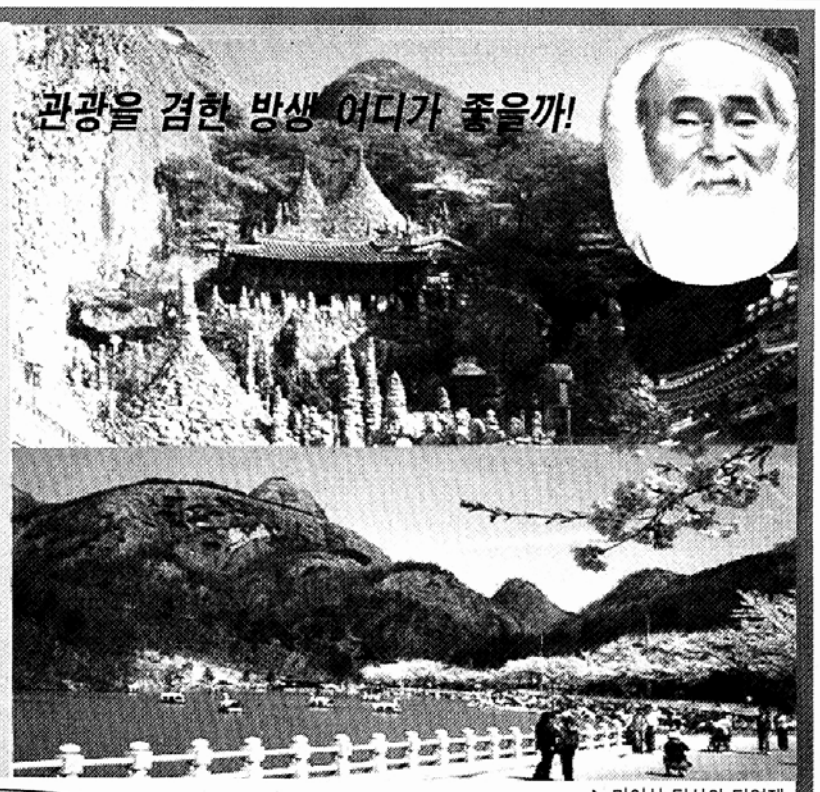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